

는 李宏 형제에게 지어준 歸來亭 題詠의 제 3, 4수이다. 벼슬하는 것을 鷄肋에 비유하고 향리로 돌아온 것을 갈매기로 비유하여 공명을 다투어 분주한 것과 강호에 한가로이 悠悠自適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功成身退하여 형제가 함께 한적함을 즐기는 것이 부럽다는 이야기이다. 농암 자신도 만년에 愛日堂을 짓고 거기에서 부모를 봉양하며 은퇴의 樂을 찾았는데,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과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鄉居의 樂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다.

官인이 전원으로 퇴휴하여 樓亭을 경영하며 향거의 樂으로 흔히들 음영하는 주요한 주제의 하나는 관직의 구속에서 벗어남이다. 벼슬에 나간 관인이 은퇴를 선언하고 돌아오는 것은 대개 두가지이다. 하나는 七十致仕의 명분대로 연로하여 은퇴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중도에서 여차한 사정으로 관직을 내놓고 물러서는 경우이다. 중도에서 벼슬을 그만 두는 것은 또한 군왕의 지우를 받지 못하여 벼슬에서 내쳐지는 것과 亂邦不居의 논리대로 기미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 明哲保身하는 것과 스스로의 처지와 취향이 세상과 합치하지 않아서 隱居求志하는 것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환로에서 세파에 시달리며 세상의 시비와 함께 추측해야 하는 구속은 향리로 돌아옴으로써 자유롭게 된다는데 은퇴는 매력적인 것으로 구가될 수 있었다.

\*선생께서는 다섯 고을을 두루 다스리고 일찌기 歸去來를 읊으며 돌아와서 그 가운데 누워서 靑山白雲을 寔屏으로 삼고 靑風明月을 賓介로 삼아 曾點과 같이 風詠하며 陶淵明과 같이 舒嘯하여 마음이 텅 비고 즐거움이 悠然하여 태평스러웠다. 그 樂은 萬鍾祿을 받는 재상이라 할지라도 이것과 바꿀 수는 없다. 무릇 벼슬길이 영화롭다지만 욕됨이 있기에 군자는 勇退를 귀하게 여긴다. 짐짓 한 고을의 일로 말하더라도 元帥 李芳實은 세상을 뒤덮을 충성으로 京城을 능히 收復하여 三韓의 魚肉을 모면하도록 하여 그 공이 막대한데도 살았을 적에 橫厄을 만났으며, 相國 魚世謙도 華國의 문장으로 국왕을 보필하고 선비들의 기둥이 되어 명성이 높았는데도 죽도록 모면하지 못했으니, 선생의 樂에 견주어본다면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39) 周世鵬, 咸安 無盡亭記, 武陵雜稿 卷七

先生歷典五州 早賦歸去來 而高臥於其中, 以靑山白雲爲寔屏 以靑風明月爲賓介, 發曾詠 舒陶嘯, 蕭然而幽 寂爾而曠 悠然而樂 熙熙如也. 其樂也無盡 雖萬鍾之卿相 不足以易此. 夫宦海雖榮 而有辱. 故君子 勇退以爲貴. 姑以一邑之事 言

周世鵬(1495~1554)이 嘉靖 임인년(1542) 함안의 향리에 無盡亭을 짓고 퇴거한 前牧使 趙參의 정자에 記文으로 쓴 글의 일부이다. 崔瑩과 함께 紅巾賊을 討滅한 李芳實(~1362)이 金鑄의 모함으로 誅殺당하고, 세조 성종 연산조 등 四朝를 歷仕한 魚世謙(1430~1500)이 죽도록 관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한 것과 같은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부귀공명은 구차하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고을의 벼슬을 거쳐서 신분적인 立地가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의 공명을 탐하지 아니하고 용단을 내어 퇴진한 사대부에게는 그의 자유로움을 위협할 아무런 요소도 없었다. 慎齋 자신도 사실상 한평생을 벼슬길에서 물러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 시대의 崎險한 士禍의 풍파속에서 ‘汶上에 아니간들 陋巷이 없으소나 藜藿의 좋은 맛을 駟馬에게 사들 손가 春風에 浴沂하고 날로 三省하오리,<sup>40)</sup>’라고 시조를 읊어 강호에의 귀향의 뜻을 읊조렸으니, 관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관직을 가진 사대부들에게 있어서는 鄉居自樂하는 하나의 즐거움으로 염원되었던 것이다.

관직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대부의 의식 속에 기묘한 宦路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향리 귀환의 감상으로 노래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아예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고 향리에 정착한 士族에게 鄉居의 自樂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조선 중기에 이르러 벼슬을 마다하고 강호와 산림에 자적하며 隱居求志하는 이른바 處士들이 다수 나타나서 학문과 명절로 일세를 풍미하게 되자 산림의 隱逸은 조정의 대부에 못지 않은 숭앙을 받게 되고 그러한 풍토속에서 향거의 至樂이 구가될 수 있었다.

\*들이켜보면 시골생활 가운데 즐길 만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그 중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또 홀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는 農, 桑, 漁, 樵 네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정자 이름을 四樂亭이라 하고 시를 지어 덧붙인다.

我識田家樂 전가의 즐거움을 나는 아느니  
春來播土煙 봄 오면 흙에다 씨를 뿌리며

之, 李元帥芳實 以蓋世之忠 克復京城 濟三韓於魚肉 功莫大矣 而生權橫及, 魚相國世謙以華國之文 肅肅王猷 爲多士之楨幹 名莫高矣 歿亦不免 方之先生之樂 不亦愧乎

40) 周世鵬, 竹溪舊誌(정병욱 詩調文學事典 p. 192, 신구문화사 1980)

苗生時雨後 때맞춰 오는 비에 싹이 나오고  
 禾滿秋霜前 가을 서리 오기전에 벼이삭 가득  
 玉粒充官租 옥같은 알곡으로 세금바치고  
 陶盆會俗延 술빚고 손님 맞아 잔치 베푸네  
 何如金印客 어떠타 金印을 찬 벼슬아치는  
 憂患送流年 근심속에 세월을 흘려보내나

我識樵歌樂 나뭇군 즐거움을 나는 아느니  
 生居洞裡村 골 속의 동네에 나면서 살아  
 相呼入雲遠 구름 낀 깊은 산 속 서로 부르며  
 高擲出山昏 나뭇짐 높이메고 나오면 황혼  
 愛伴心同鹿 마음 같은 사슴은 좋은 길동무  
 忘形貌似猿 모양 같은 원숭이는 친한 벗이라  
 何如名利子 어떠타 功名쫓는名利子들은  
 平地見波翻 평지에서 파도에 뒤집혀지나.<sup>41)</sup>

이는 退溪 李滉이 군수로 있다가 安義에 四樂亭을 짓고 은퇴한 全叟 謙이라는 사람에게 정자 이름과 함께 지어준 題詠 가운데 제 1수와 제 4수이다. 鄉居의 생활은 사대부 본연의 임무인 致君澤民의 사업에서 農桑漁樵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자를 짓고 그러한 생활을 즐긴다고 하면 거기에 즐길만한 요소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거기서 즐기는 樂이란 宦路의 분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自足的인 생활 그자체에 충실함이다. 그것이 범상한 일상생활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樂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복무상한 宦路의 풍파에서 벗어남이기 때문이요, 사람들과 가식없는 소박한 인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農桑漁樵란 士族이 직접 노동에 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나는 다행히도 선대의 遺業에 힘입어서 수고를 대신할 從僕이 있고 정자의 좌우에 우리집의 전장이 많다. 내가 두건을 짓히고 책을 안고서 이 정자에 기대어 있으면 밭갈고 김매는 농군이 감히 게을리 하지 못하고 씨 뿌리고 김매기를 때맞추어서 해마다 그 힘으로 먹고사니 몸소 경작하지

41) 李滉, 四樂亭記, 嶺南誌 卷六十

\* 願以村居之中 可樂者非… 求其可與衆樂 而又可以獨樂者 有農桑漁樵 四者爲然. 故名亭曰四樂 而繼之以詩曰,

않더라도 경작하는 실속이 있다.<sup>42)</sup>

權晦彦이라는 사람이 田野간에 정자를 짓고 耕巖亭이라 이름하고 訥隱 李光庭에게 글을 청하자 지어준 글의 한 부분이다. 선대로부터 세습되는 안정된 가산이 있어야 樓亭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속에서 농업을 경영하며 정자를 짓고 自樂할 때 田園의 흥취가 도도한 것이요, 직접 노동에 가담하여 그 생산의 困苦함을 함께 하는 의미로서의 自樂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료로서 또는 중소 지주로서의 사대부의 鄉居自樂이란 말이 일정한 한계가 그어지는 것이다.

공명을 탐하거나 현실적인 영달을 꾀하지 아니하고 세습되는 그대로의 家産을 유지하며 주어진 분수를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벼슬에 나가지 않고 벼슬과 무관한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樂이란 讀書講學의 개인적인 수양이나 孝友鄉黨의 가족적 향촌적 윤리의 실천일 것이다.

\* 老隱堂成老隱翁 老隱堂 정자지은 노은당 늙은이는  
 百年基業一村中 백년의 기업을 한마을에 이뤄왔네  
 卜居久矣曾何世 일찌기 어느 댁지卜居한지 오래되어  
 環堵蕭然足蔽風 담장 안이 쓸쓸하나 바람비 가리겠네,  
 修竹寒松看晚節 기름한 대 겨울 솔로 晚節을 보겠거니  
 鳴琴灑酒養閑躬 거문고와 술을 쳐서 한가한 몸 길러가네  
 孝慈友弟吾家外 우리집안 효고하고 우애하는 그밖에  
 於世無妨一鬢鬢 세상 일엔 귀찮아리 되어도 괜찮겠지.<sup>43)</sup>

念睡軒 金龍翰(1738~1806)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언양 인근의 老隱亭이라는 정자의 낙성연에 가서 지은 시이다. 지방에서 사족으로 일정한 신분을 가진 鄉班으로서 일찌감치 관직에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樓亭題詠에 흔히 나타나는 내용으로서, 대대로 한고을에 世居하면서 의식을 해결할 만한 家産이 있고 名利를 탐하지 아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42) 李光庭, 謙巖亭記, 訥隱集 卷八

\* 吾幸賴先故之餘業 有僕指足以代勞 而亭之左右 多吾家之莊 吾岸巾抱書 而類乎是亭 耕夫不敢慢 穡夫不敢惰 而播耘以時 歲食其力 無待於窮耕 而有耕之實,

43) 金龍翰, 次老隱亭落成韻, 念睡軒集 卷一

세상의 시비와 관계 없이 집안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만으로 自足的인 樂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在 鄉士族으로서 향리에서의 安分守居란 이와 같이 가족주의적인 안일에 안주하여 스스로 성세의 일민으로 자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곳은 내가 휴식하는 곳이다. 은거하여 수양할 수 있을 터이지만 隱月峰은 우리 집안의 산이요 은월봉 아래에 이러한 휴식의 정자를 짓는 것은 혹 賢祖의 遺志에 욕됨이 있는 것은 아닐지, 돌이켜 나의 졸렬함을 살펴 보건대 재능과 지혜가 형편없고 식견도 천박하여 存養修省의 공부도 조금도 향리의 士友나 촌 秀才들에게 도움될 것이 없으니 여쭙 감히 앞서 나아가 뒷사람에게 넉넉히 물려줄 것을 기대하라. 아아 나는 山水의 客이다. 다만 여기에서 쉬고 여기에서 거처하며 心神을 즐겁게 하고 성품에 맞추어 지낼 수 있을 것이며 마음을 편안히 하여 기운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니 마음 속에 쌓인 人慾의 찌꺼기를 녹여 없애고 昭曠의 경지에 도달하여 餘年을 마친다면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sup>44)</sup>

李東英(1635~?)이라는 사람이 울산의 은월봉 아래에 二休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스스로 지은 記文의 한 부분이다. 賢祖의 유지란 학문을 성취하여 立身行道하는 것일 터인데 이왕에 世用이 되지 않았으니, 그 다음으로 鄉黨의 士友와 村秀才에게 학문을 강론하고 예양의 풍속을 일으키는 것이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다만 정자에서 소일하며 餘年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같은 鄉居의 自樂들에 대하여는 적어도 두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은퇴한 사대부나 향리에 눌러앉은 士族이나 모두 자신의 향리에 대한 깊은 애착을 노래한다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 '樂'을 구가하는 곳이 樓亭이라는 점이다.

향리에 전장을 가지고 그것을 대대로 지켜가며 일정한 신분적 특권을 향유하는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향리는 곧 세속의 영화와 결별하

44) 李東英, 二休亭記, 院祠樓誌 p. 951

\* 此吾休息之所也 庶可以藏修之計, 而隱月便是吾家山也 隱月之下起此休亭 其或無忝賢祖之遺志否. 顧此劣才 智齒莽識見膚淺 其存養修省之功 少無裨益於村秀才則 安敢望進先而裕後乎. 噫若余 山水客也. ~但休於斯 處於斯 可以怡神適性 可以安心養氣 消釋渣滓之塵 到達昭曠之域 以終餘年 不亦可乎.

고 안착할 강호요 산림이었던 것이니, 그러한 자족적인 생활 속에서의 자기만족적인 구호가 강호자연의 安貧樂道였던 것이요, 그러한 樂은 위와 같이 대개 개인적인 취향이거나 가족적 지역적인 범위에서 안주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들의 한적한 생활여유로 향리에 대한 애착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심화하여 그 결과로 변화한 도회의 영화와는 다른 農牧漁樵의 평범한 일상의 현실과 범상한 자연에서 향촌적 삶의 가치를 찾아내어 주었다는 것은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4 風詠宴樂의情趣

樓亭은 본디 游觀宴息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館의 樓亭에서나 私家의 亭齋에서나 官人이나 향리의 士族을 막론하고 일정한 신분을 갖춘 이라면 樓亭에서의 사대부들의 宴樂에 참여하여 그 흥취를 노래한 시가 가 많이 있다. 이러한 시가들은 대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客中의 회포나 경관에 대한 개인적인 서정을 담담한 심사로 노래함이요, 다른 하나는 宴席에서의 취흥을 즉흥적인 酬唱으로 읊어낸 것이다.

樓亭이 游觀하는 공간이만큼 樓亭 주변의 자연 景勝은 자연히 사대부의 지적 유희로서 登高賦詩의 소재로 등장한다. 이런 경우 대개 인간의 세속적 세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구역으로 묘사되고 그러한 공간에 노니는 자신들은 俗世을 떨쳐버리고 至樂을 얻은 호탕한 인물로 나타내기 마련이다.

서로 樓閣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높은 산이 뒤에 솟아있고 큰 내가 앞으로 흐르며 여염집들이 사방에 벌여 있으며 평야와 언덕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특별한 한 洞天을 방불하게 하니 또한 이 누각의 승치이다. 조금 있다가 잔치를 시작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함께 마시며 落成하였다. 좌우로 술잔을 주고 받으며 술잔과 술상이 교차되고 絲竹의 음악이 툼툼히 연주되며 번갈아 일어나 춤을 추니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정경이 도도하여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인지도 모르고 마치 鈞天에 올라 廣樂의 음악을 듣는듯 황홀하여 저절로 신명이 흘러나왔다.<sup>45)</sup>

45) 李宜茂, 麟泉 快賓樓記, 麟南誌 卷三十七

相與登樓四望則 高山聳後 大川經前 閭閻四布 平岡斷隴 擁圍周遭 彷彿若別一洞天 亦斯樓之勝概也. 俄而 開宴置酒 共飲而落之. 坐右獻酬 杯盤交錯, 絲竹間作

蓮軒 李宜茂(1507~)의 禮泉 快賓樓記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정자 주변의 인문과 자연경관이 그대로 하나의 특별한 洞天을 이루고 그 속에서의 歌舞飲酒의 行樂이 仙界의 지극한 樂과 방불하다고 하는 것은 이 누각을 완공한 주인 官長을 위하여 공치사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樓亭에서의 景觀과 宴樂을 형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여염이 즐비한 그곳은 인간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요, 絲竹管絃의 俗樂이 신선의 음악과 방불할 수 없을 터인데 그것을 天上의 至樂으로 觀念하는 데에는 다만 樓亭의 遊興을 과장하고 미화하자는 의도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러한 樓亭에서의 宴樂은 官府 경영의 樓亭인 경우 대개 官長이 주인이 되어서 使客을 접대하거나 특별한 일로 一鄉의 士族 유지를 모아 향연을 벌임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런 자리에서 음영되는 시가는 개개인에 따라서 그 정취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景物의 讚嘆과 宴樂의 稱賞, 客中の 述懷 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權近(1352~1409)의 다음 嶺南樓 제영은 宴席에서 그 경물을 노래한 것이다.

高樓百尺控長天	백척 높은 다락 하늘 높이 솟았는데
風景森羅机案前	자리 앞에 풍경들은 삼삼히 벌여있네
川近水聲流檻外	가까운 내 물소리는 난간 밖을 흐르고
雲開山翠滴簷邊	구름걸힌 푸른 산은 처마끝에 일렁이네
千畦隴畝禾經雨	넓은 들판 벼잎들은 비를 맞아 푸르르고
十里閭閻帶樹煙	십리 빈천 여염들은 숲안개에 어른어른
匹馬南還過勝地	필마로 남방 와서 승지를 지나다가
可堪登眺添賓筵	올리와 구경하며 잔치자리에 함께했네. <sup>46)</sup>

禾穀이 무성한 들판과 인가가 즐비한 고을의 평화스런 풍경에다 시인의 詩興을 도울만한 산천의 경계, 이런 것들이 樓亭 宴席의 흥을 도와 주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宴席에서 주변의 경물들이 참담한 景色을 나타내거나 민가의 困苦한 情狀은 결코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한 문자

透起爲舞，怡怡愉愉 情景陶然，不知誰主誰賓，況然若登鈞天 聞廣樂，而不覺蹈舞之不足也。

46) 權近, 嶺南樓詩, 嶺南誌 卷五十二 密陽 樓亭條 嶺南樓

는 당장 宴席의 좋은 흥취를 깨뜨릴 뿐 아니라 자리를 마련한 당해 고을 守令의 爲政을 비난하는 고약한 발언으로 그 자리에서 축출당하기 알맞은 불량한 인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官府의 樓亭에서 보이는 경물은 요컨대 신선의 특별한 仙境이거나 아니면 담담한 平蕪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정식화 되어 있는 것이요, 특별히 회고적 감회나 개인적인 회포를 나타낼 적에도 경물 그 자체는 담담한 자연이거나 변함없는 승경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官府 樓亭의 宴樂은 李翊의 다음 축석루시에 잘 나타난다.

— 上畧 —

偷閑呼伴侶	틈을 내어 친구를 불러모으고
更教紅袖舞	다시금 기녀에게 춤추게 하여
賞心不知疲	피곤한 줄 모르고 구경하면서
酒數初無數	술잔은 애초부터 한정없었네
樓中作仙樂	仙樂이 누각 중에 베풀어지니
指點人爭覩	사람들이 가리키며 다투어 보네
擊鉢詩色成	바라 쳐서 시편을 이루어내고
玉繩低水府	玉繩은 물밑까지 낮게 드리네. <sup>47)</sup>

유지 인사를 불러 모아 술자리를 벌이고 官妓를 불러 歌舞를 아뢰게 하는 佚蕩한 宴樂을 주변의 民人들이 무심하게 다투어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풍정이요, 그 속에서 여흥으로 賦詩의 재능을 과시하는 것도 風流라고 여기는 것은, 또한 그 주변의 경물이 태평의 기상을 띄고 있다고 묘사하는 자세와 동일한 태도라 할 수 있다.

宴席에서 개인적인 감회를 읊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기 다양한 것이어서 일률적인 틀을 잡아내기 힘들다. 樓亭詩에서 작자의 특이한 개성이나 관심의 향방을 찾으려면 이러한 종류의 제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金宗直의 嶺南樓 제영과 李滉의 礪石樓 제영으로 그러한 면모의 일단을 살피는 것으로 그친다.

登臨正值浴沂天	시절 마침 浴沂할제 누각에 올라
酒面風生倚柱前	기둥 앞에 기대서니 시원한 바람
南國山川輸海上	남국의 산천은 바다에서 가져온듯

47) 李翊, 礪石樓詩, 嶺南誌 卷五十三 晉州 樓亭條 礪石樓

八窓絃管湖雲邊 사방의 관현소리 구름 가에 울리우네  
 野牛浮鼻橫官渡 들소는 코를 들고 나무를 건너오고  
 巢鷺將雛割曉煙 깃든 백로 새끼치러 저녁하늘 나르네,  
 方信吾行不牢落 알겠도다 내 행차 시원하질 않아서  
 每因省母添賓筵 모친비리 매양 왔다 賓筵에 함께하네.<sup>48)</sup>

金宗直이 老母가 계시는 밀양으로 왔다가 영남루의 宴席에 참여하여 지은 시이다. 일반적인 경물과 宴席의 풍경을 묘사한 뒤에 소가 내를 건너고 백로가 등우리를 틀기 위해 바쁘게 날아다니는 향리의 풍경을 범상한 경물묘사라기보다는 친근한 정감으로 나타내어 觀親하러 온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落魄江湖知幾日 뜻을 잃고 강호에 떠 돈지 몇일인가  
 行吟時復上高樓 때때로 高樓에 올라 읊조리며 다니네  
 橫空飛雨霎時變 허공에 뿌리는 비는 일시의 변태러니  
 入眼長江萬古流 눈 앞의 긴강물은 만고를 두고 흐르네  
 往事蒼茫集鶴老 지난 일 어두한채 깃든 학은 늙어가고  
 鷓鴣懷蕩野雲浮 길손의 심사흔들며 구름은 떠 가네  
 繁華不屬詩人料 변화함은 시인이 헤아릴 바 아니기에  
 一笑無言俯碧洲 말없이 웃어버리고 푸른 강변 굽어본다.<sup>49)</sup>

李滉이 축석루의 宴樂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소회를 읊은 것인데 宴樂의 변화함은 자신이 헤아릴 바 아니며 다만 일시의 변태가 아닌 만고를 두고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관조하고자 한다는 다소 宴樂의 현상과 동떨어진 감회를 읊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감회를 읊은 시들은 작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하여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잠정적으로 위 두 사람의 취향을 간략히 논할 가치가 있다. 김중직에게서 管絃의 宴樂이 거부되고 있지 않은 반면 이황에게서는 명백히 그것이 변화한 것으로 기피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들이 취하는 風詠의 취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의 한 세기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들 두 사람의 취향이

48) 金宗直, 嶺南樓詩, 嶺南誌 卷五十二 密陽 樓亭條 嶺南樓

49) 李滉, 巖石樓詩, 嶺南誌 卷五十三 晉州 樓亭條 巖石樓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문인과 학자의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俗尙의 차이라 함이 온당할 것이다. 이황 자신이 矜豪放蕩한 음악을 극력 배척하였거니와 시가에서도 天光雲影 속에 天理人心을 형용하고자 하였던 도학자들에게 풍류란 宴樂과 또 다른 개념으로 익어갔던 것이다.

官府 樓亭 중에서 특별한 용도를 지닌 城樓나 요새지의 關門 門樓의 제형에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고 군사의 사기를 고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도 하며, 각 읍 客舍의 부속 樓亭에는 군왕의 덕성에 대한 송축의 문자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하는 데는 다름이 없다.

한편 선대의 유적이거나 선현의 자취가 알려진 곳에는 대개 당대의 변화한 宴樂과 고상한 풍류에 대한 추억이 서술된다.

新羅學士玉京仙 신라의 學士는 玉京의 신선이러니  
 一點孤雲去渺然 한 조각 孤雲은 아득히 떠나갔네  
 方丈祇今樓百尺 방강신 아래 지금도 누각은 백척이라  
 月明笙鶴曲欄邊 달 밝으면 허소리 난간 가에 들리네.<sup>50)</sup>

吳翺의 함양 學士樓詩이다. 이러한 종류의 시가 대개 그러하듯이 지나간 시대와 인물의 풍류를 신선과 仙境으로 미화하는 것은 樓亭 자체가 神仙好樓居의 말대로 세속과 다른 仙的 幻影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私家の 樓亭에서는 官府의 樓亭과 같이 성대한 연락은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 형제와 친척 향당간의 情誼를 돈독히 하는 내용이나 士友간의 은근한 酬酌을 하고 讀書講學하는 등의 鄉居自樂하는 내용 외에, 樓亭 주변의 경물을 취하여 寓興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룬다. 樓亭 주변의 경물을 취하여 우흥하는 것은 반드시 樓亭과 관련되는 것이라 보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 集景詩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樓亭과 관련한 集景詩는 私家の 樓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樓亭의 경관에다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독특한 미적범주를 형성하였다는 데 있다. 이

50) 吳翺, 學士樓詩, 嶠南詩 卷五十九 咸陽 樓亭條 學士樓

러한 집경시는 역대 시인들의 시문에서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거니와 퇴계집에 수록된 것만 하더라도 陶山雜詠十八絶을 비롯하여 崎亭十詠, 韓上舍江亭十景, 仙游洞八詠, 挹清亭十二詠, 集勝亭七絶 등이 있다.

이들 集景詩는 대개 簫湘八景이나 武夷九曲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대개 세가지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상팔경시와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나누어 읊은 것이니 퇴계집의 集勝亭十景으로 郡城曉角, 山寺暮鍾, 遠林白煙, 長橋落照, 堂洞春花, 鶴峰秋月, 蘆田牧笛, 箭灘漁火, 北山行雨, 南郊飛雪 등을 든 것이 그것이요, 둘째는 시인의 즐기는 행동으로 표준삼은 것이니 퇴계집의 挹清亭十二詠으로 望山, 聽江, 待月, 迎風, 讀書, 會友, 宴坐, 晚步, 養鶴, 釣魚, 蒔花, 種蔬 등을 든 것이 그것이며, 셋째로 구체적인 장소와 사물을 바로 지칭함이니 퇴계집의 陶山雜詠에서 玩樂齋, 幽貞門, 淨友塘, 節友社, 天淵臺 등을 든 것이 그것이다.

다음은 挹清亭十二詠의 第一首 望山이다.

何處無雲山	어디엔들 雲山이 없을까마는
清涼更清絕	청량산은 더욱 더 清絶하여라
亭中一延望	정자에서 한번만 바라다보면
清氣透人骨	서늘한 기운이 뼈에 스미네. <sup>51)</sup>

이같은 集景詩는 樓亭에서 風詠할 수 있는 시적 소재가 풍부함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樓亭의 경물에 일정한 의미나 교훈을 부여하여 修省의 바탕으로 삼고 또 樓亭생활의 雅趣를 자위하려는 의도가 있기도 하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 集景詩의 소재들은 실상 산과 내가 있는 향리라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풍경이요, 향리의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경험하게 되는 평범한 사실들이다. 절에 종소리 들리고 봄에 꽃피고 달이 산에 오르는 것이며 안개끼 산들과 푸른 대나무 숲, 그 속에서 산을 바라보고 강물 소리를 듣고 글 읽고 산보하는 등속의 景物과 행동이 전혀 유별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평범한 주변의 景物과 일상의 생활에 대하여 세심스럽게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風詠하

51) 李滉, 金嶺仲邑清亭十二詠 望山, 陶山全書… p. 1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게 되는 것은 한적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거나와 그러한 풍영을 통하여 樓亭에서의 遊觀宴息이 사대부다운 雅趣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양반 사대부의 樓亭에서의 휴식이 그들의 신분적 위세와 같이 常民의 그것과 구별될 수 있었던 표지의 하나는 詩賦를 음영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휴양에는 의례히 詩賦를 음영하는 지적 유희가 부수되었고, 그러한 속에서 樓亭주변의 경물과 樓亭에서의 감회를 풍영하는 것은 하나의 風流로 기억되었다. 그런 중에서 특히 집경시와 같은 것은 비록 그 소재가 판박이처럼 고정된 경향은 있으나 일정한 지역을 구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자연과 인문 경관의 미적 가치를 부각하고, 향촌생활의 여러 가지 면모에 대한 흥취를 고양시켜 줌으로써 향리에 대한 애착을 길러 주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 3-5 觀物靜養의 興懷

樓亭을 에워싼 주변은 자연이다. 樓亭이 본디 주변의 경관을 조망 遊賞하는 곳으로 건립되는 것이므로 樓亭의 詩文에는 이러한 자연 경관을 포괄하여 묘사하고 그러한 자연 속에서 마음을 수양하고 物理를 체득하는 감흥을 서술한다.

金湊가 지은 밀양 嶺南樓記에는 이러한 樓亭景觀의 범주가 잘 요약되어 있다.

먼 산과 트인 들판, 먼 강물과 긴 하늘에 바람과 구름이 변화하고 봄 여름으로 바뀌는 모습은 조화의 무궁함이요, 들에서 농사에 힘쓰고 언덕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며 물가에서 고기잡고 산에서 나무하며 부지런히 왕래하여 전후로 끊이지 아니함은 그 사이에 人事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다.<sup>52)</sup>

자연의 山水野天和 인문의 農牧漁樵의 靜態와 風雲春夏의 往來絡繹하는 動態가 樓亭 경관의 일반적인 범주이다. 동양의 자연관이 특수한 자

52) 金湊, 嶺南樓記, 밀양루정록 p. 2 밀양문화원 1985.

\* 山遙野闊 水遠天長 風雲變態 春夏異觀者 固造化之無窮 而農勤于野 牧放于原 漁者于水 樵者于山 備備往來 前後絡繹者 人事之代謝于其間者也.

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일반을 관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널리 지적되거나, 山水의 遠近과 깊고 넓음(奧曠)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바위가 기이하고 지형이 특이하며 울창하게 숲과 화초가 있으며 동리가 가까우나 소란스럽지 않고 읍이 가까우나 俗塵이 없으며 영롱하고 깨끗하여 그윽한 승취가 많은 것은 깊숙한 것으로 적의하고, 비옥한 들판이 아득하며 대륙이 펼쳐져서 넓고 평탄하여 사방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인가가 즐비하고 煙火가 조밀하여 좌우로 바라보면 정신이 상쾌한 것은 넓은 곳으로 적의함이다. 鶴駕山이 남으로 촘촘하며 오고 鳳凰山이 북으로 날아들며 太白 小白山이 하늘까지 치솟아 뻗어 있어서 병풍같고 장지문같으며 쌓아올린듯 깎아세운듯한데 구름과 안개가 변태를 드러내며 사철마다 景色이 다른 것은 그 산의 승치이며, 臨川이 뒤를 두르고 沙溪를 앞으로 띄어 맑은 시내 흐린 도랑물이 서로 모여 못을 이루어 厓河를 비추이고 雲天을 삼키면서 바람의 파문과 달빛의 파도로 호탕하고 보란 것은 그 강물의 승치이다.<sup>53)</sup>

樓亭에서 보는 자연의 경관을 산과 물, 광활함과 깊숙함의 네가지 요소로 분석하여 설명한 河受一(1553~1612)의 이 榮川東龜臺記의 같은 산 이름과 물 이름을 바꾸어 놓고 보면 山水 좋은 여느 樓亭의 경관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樓亭의 경관을 서술하는 詩文에 있어서 또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四時의 순환이다.

산과 내 서릿물이 찬란하게 다투어 생기를 띠면 이는 봄의 아름다움이요, 연잎이 구름을 이루고 언덕과 습지가 용비늘처럼 변화함은 여름의 아름다움이며 구슬같은 모래에 기러기 앉고 옥같은 물결에 달빛이 가득함은 가

53) 河受一, 榮川東龜臺記, 松亭集 卷四

\* 闕巖惟奇 闕上有沙 鬱然有松有花 里邇喧喧 邑近塵塵 玲瓏蕭條 幽致實多者 於奧宜也.

沃野蒼茫 大陸靡曼 既衍且夷 四隅一觀 巒嶺雜沓 煙火尉盤 左眺右眄 神爽骨寒者 於曠宜也.

至若鶴駕舞南 鳳凰飛北 太白小白 橫亘峻極 若屏若障 如巖如削 雲煙獻態 四時異色者 其山勝也.

臨川襟後 沙溪帶前 清溝汚渠 互流成淵 涵泳星河 吞吐雲天 風淪月波 浩然妙然者 其水勝也.

을의 아름다움이며 구름 장막에 눈이 쏟아지고 송죽이 푸르름을 간직함은 겨울의 아름다움이다.<sup>54)</sup>

金宗直의 豐山四美亭記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春夏秋冬 사철의 추이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은 春水 夏雲 秋月 冬雪의 四時吟으로 일찍부터 애송된 것이지만, 네 계절 자체가 元亨利貞 仁義禮智와 같은 우주의 원기와 덕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春生秋殺의 기운으로 만물을 生長 收藏하는 天理의 기틀을 드러낸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철의 변화는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인사의 변천과 자연의 物象을 표현하는 좋은 소재로 자주 채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千態萬象과 變轉無窮함을 遊觀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범속하지 아니한 자연의 오묘한 조화 속에서 스스로 仙化하는 황홀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연의 담담한 모습에 자신을 투사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리라는 태도를 표명하기도 하며, 나아가 자연을 보고 浩然 清明 虛靜 正大 光明 正直 特立 등등 중종의 기상을 기르며 天理를 체득하는 수양의 가치를 천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누정기문의 내용을 觀物靜養이라는 표제로 논할 수 있다.

먼저 樓亭의 범상하지 아니한 경관을 仙境으로 미화하고 그 속에서의 흥취를 세속과 멀리 절연한 物外之遊에 비견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화려한 마음을 세척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있다.

大堤의 십리에 걸친 연꽃과 離宮臺 舍人巖의 천길 깎아지른 벼랑은 보기에 놀랍고 바람 받은 돛과 모래밭의 물새 안개끼인 대나무숲은 날마다 정자 아래에 모습을 나타내어 지나는 자들도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고 호젓하게 몸이 풀리나니 하물며 부귀를 보잘것 없이 여겨 物外에 노닐며 自得한 사람이라.<sup>55)</sup>

54) 金宗直, 豐山四美亭記, 估畢齋文集 卷三

\* 山河溪流 爛漫爭榮則 此美於春者也, 荷插成雲 原濕龍鱗則 此美於夏者也, 瓊沙雁步 玉瀄月滿則 此美於秋者也, 雲屏浪雪 松竹留青則 此美於冬者也.

55) 南景義, 曲江亭重修記, 密陽樓亭錄 p180, 밀양문화원 1986.

\* 大堤上里荷花 離宮臺 舍人巖 千仞削壁 見之可驚, 風帆沙鳥 煙雲竹樹 日獻態於下, 過者泯然而心醒 窅然而形釋 而況傲富貴遊物外而自得者乎.

南景義(1812~?)라는 사람의 밀양 曲江亭重修記에 나오는 말의 일부이다. 大堤와 離宮臺 舍人巖 등은 모두 曲江亭이 있는 守山 주변의 古蹟地名인데 그곳의 경치가 놀라와서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신이 상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한적하게 은퇴한 인물에게는 더욱더 자득할 게 많으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의 경치가 사람의 속된 마음을 씻어주는 공효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자연을 수양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누누히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樓亭에서의 宴樂이 歌舞飲酒의 방탕함으로 흐르거나 富貴者의 호사로 그치는 폐단이 있어서, 經國濟民이 아니면 隱居求志해야 할 사대부로서 樓亭생활의 합리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記文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심성을 수양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황한 議論으로 전개 설명하기도 한다.

대개 군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서 패옥과 琴瑟을 취하여 보조하는 것이요 반드시 패옥과 琴瑟이 있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와 같은 사람은 사물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려는 사람인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도리가 있는데 사물의 淸冷한 것을 취하여 보조하는 사람인가. 일에는 종류가 다르면서 서로 感應하는 게 있으니 그 이치가 같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가.名利의 마당에 들어가면 더러워지고 紛華한 곳에 가면 풍량이 일어난다. 이 세 넓은 들판 적막한 강호로 초연히 벗어나면 저절로 명랑하고 상쾌해지며, 또 밤 낮으로 상접하는 것이 다름아닌 담담한 모습과 함께 하고 시원한 소리와 함께 마음을 통하고 유유히 마음을 비우고 넓고 깊으면서 조용하여 정신이 녹아들어 말없이 알고 優游涵泳하여 다듬지 않아도 다듬어지게 되고 잡된 마음이 혼연히 사라져서 티끌과 먼지가 다 없어지고 神明한 본체와 感通의 묘함이 저절로 있게 되나니 마음을 씻어줌이 막대하다.<sup>56)</sup>

56) 權培, 洗心亭記, 南谷集

\* 蓋君子自有治心之道 而取玉與琴瑟 以爲之助焉. 非必待玉與琴瑟而後 可以治心也. 然則君子者 其以物治心者邪. 其自有治心之道 而取物之淸冷者 以爲助焉者邪. 事有殊類而相感者 其理同故也. ~ 存乎人者 獨不然乎. 之其聲利之場而汚泥焉 之其紛華之所而風浪焉. 乃今超然於寬閑之野 寂寥之濱則 已自郎爽 而又其日夕之所相接者 無他 澹然之色 與視謀, 冷然之聲 與聽通. 悠然而虛 淵然而靜 神融會而默契 優遊涵泳. 蓋有不濯之濯 而渣滓渾化 塵垢淨盡 神明之體 感通之妙 自在焉則 洗心莫大焉.

權楮(1639~1704)의 洗心亭記에 나오는 말이다. 心性을 수양하는 데 있어서 패옥을 차고 금슬의 음악으로 助養하듯이 자연의 景勝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殊類相感이 가능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명리를 다루는 복잡한 곳에 있으면 마음도 따라서 흔들려 물욕으로 더럽게 되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 마음도 따라서 조용하고 맑게 되어 물욕이 사라지고 본연의 虛明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의 근거를 權楮는 殊類相感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경물을 보고 인간의 심성을 도야할 수 있다는 신념이 단순한 직감적 언표로서가 아니라 性理學의 뿌리깊은 사고에 근거를 둔 논리이므로 이 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이해하는 한 단서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본디 혈통이나 겨레가 친하면 친할수록 그 기운이 서로 호응하고 共鳴하여 同聲相應 同氣相求의 이치로 설명되어 왔고, 그것이 儒家에 있어서 親疎의 차등을 두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異類보다는 同類의 감응이 더 빠르고 소중한 법인데, 異類가 서로 감응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權楮는 殊類相感의 근거로 '理'의 같음을 들었는데, 실상 이는 理一分殊의 설이다. 理가 본디 하나인데 그것이 만물을 이루었으니 현상으로 말한다면 만가지로 구분되나 근원으로 말하자면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설은 대개 송대의 성리학자 중에 '天地我父母 萬物我同胞'라 하여 物我が 본디 한 동아리임을 말한데서 유추된 것이다. 우주가 본디 하나의 理氣로 된 것이니 여기에서 천지만물이 비록 清濁粹駁의 차이는 있을망정 동기상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物과 我가 서로 감응됨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성립된 것이다. 게다가 性情이 바르고 선하게 함양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감응하는 사물을 바르게 가리어야 한다 一感之之正一은 일반적인 性情論이 가미되면 아무런 인위적인 작위나 가식 즉 人慾이 섞여있지 않은 공평한 자연 그대로의 精한 境界는 심성을 수양하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론을 가지면 이제 자연을 단순히 破寂의 遊覽이나 기이한 경치를 구경하는 探勝일 뿐만 아니라 기개와 浩然之氣를 기르고 物理를 관찰하여 체득 실천하는 수양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수양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樓亭記文에 종종 나타나 있다.

이제 무릇 물이란 그 性情이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검은 것을  
 뺐아 희게 한다. 그러므로 물가에 정자를 지어 수양하게 하는 것은 답답  
 하게 막힌 것을 풀어서 내가 나의 浩然之氣를 기르도록 함이다. 물을 가  
 지고 정자 이름을 삼아서 이곳에 놓고 휴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觀物하  
 고 자신을 반성하여 날로 날로 새로와질 것을 바란다.<sup>57)</sup>

河受一의 德山書院洗心亭記에 나오는 구절이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觀物의 공부를 통하여 日日新의 공력을 쌓고 기개를 기르는데 樓亭의  
 효용이 있으니 樓亭의 경물을 보고 그런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조선 후기의 樓亭 題詠이나 시조에 이러한 종류의 觀物을 노래한 내  
 용이 많지만 다음의 한수만 예로 든다.

群物窮時見理精	사물을 궁구하면 精한 이치 나타나니
楸間揭扁不虛名	걸어놓은 편액이 헛이름 아니로세
緣何活水滔滔去	活水는 어찌하여 도도히 흘러가나
謂有源泉滾滾生	원천이 졸졸 흘러 나오기 때문일세
來往過眞道體	지나가면 와서 이음이 참 道體이러니
自強無息實工程	쉬지않고 부지런함 일찬 공정이로다.
耽觀日夕忘餘事	하루종일 보노라고 나머지 일을 잊고
養得吾人本性情	우리네 사람의 性情을 길러간다네. <sup>58)</sup>

權相一(1679~1760)의 울산 觀逝亭 제영이다. 이 시의 의취는 鄭經世  
 의 ‘窓前에 풀이 푸르고 지상에 고기 된다 一般生意를 아는 이 그 뛰어난  
 고 어찌버 光風霽月 坐上春風이 어제문듯하다’는 시조와 흡사하다. 源泉  
 과 活水는 鶯飛魚躍, 天光雲影, 春風秋月, 春草生意 등과 같이 자연  
 계의 쉬임없는 流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자연계의 쉬임없는 유동은  
 그것을 주재하는 본체가 있고 그것이 바로 天理이니, 樓亭에 거처하며  
 사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이러한 天理를 체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그

57) 河受一, 德山書院洗心亭記, 松亭集 卷四

\* 今天水 其性情 汚者濯之潔 黑者濯之白. 故壓流抗亭 欲使藏修者 宣暢煙鬱 吾  
 養吾浩然之氣也. 因水名額 欲使遊息者 觀物反己日日新又日新也. 吾黨君子 苟  
 能登斯亭 遐想先生之遺風 又能顯名思義 克修澄心之功則 美矣.

58) 嶠南誌 卷四十四 蔚山 觀逝亭條

것이 樓亭에서 사대부가 취할 수 있는 수양의 한 방법이라는 말이다.

자연 경물을 遊觀하고 휴식하면서도 觀物窮理의 道學者的 수양을 風流로 여기는 것은 필시 矜豪放蕩한 宴樂을 비판하고 한편으로 玩物喪志를 경계하는 기풍이 일어난 조선 중기 이후부터라 할 것인데, 과거에 뜻을 끊고 강호 산림에서 隱居求志를 표방하는 향리의 사족들에게 있어서는 더우기 樓亭에서의 佚蕩한 歌舞飲酒의 宴樂이 가당찮은 일이거니와, 官人에게 있어서도 爲政者로서 出治之源인 자신의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논리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6 保守記念의 전통

樓亭의 건립은 당초에 현달한 官人이나 유력한 隱士가 휴양하는 곳으로 시작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러한 亭榭가 영구히 존속될 수 없는 법이어서 사람이 없어지면 정사도 따라서 폐허가 되기 마련이다. 정사를 세우는 의미와 휴양한다는 명분이 당사자의 죽음으로 퇴색하게 되고 자손들이 그러한 父祖와 반드시 氣味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父子祖孫이 일정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田莊의 기업을 세습하면서 사는 향리의 사족에게 있어서 선대의 名望과 德業은 그곳에 취락을 이루고 同居하는 門族의 공통적인 추념의 표적이 될 수 있었고 게다가 조선조에 강화된 유가적 교양은 조선을 추모하고 繼述하며 宗黨의 敦睦을 권장함으로써 선대의 유적을 기리고 보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하였다. 더구나 조선후기에 와서 더욱 강화된 門閥의식은 향촌사회에서 특히 先蔭에 힘입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심화되었으므로 先代의 功烈과 학문 덕행을 自家의 표방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의 淸要職의 銓選은 물론 소소한 말직에도 功臣과 先賢의 후예를 예우하게 하고, 지방에서는 鄉職의 薦望에도 門閥과 人望을 물어 시행하니, 비록 고관대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師友淵源이 뚜렷하고 學問 文章 德行을 갖춘 선조를 내세울 수 있어야 사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先代의 事蹟을 기념하여 그 유적지에 樓亭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는 대개 在鄉 士族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조

선종기 明宗 宣祖朝에서 시작하여 壬丙 兩亂 이후에 가서 빈번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편으로 在鄕士族이 향리에서 그들이 鄕案을 단드는 등으로 鄕權을 확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모 기념물로서 경영되는 樓亭의 詩文에는 그 후손된 이가 선대의 家聲을 이어간다는 樓亭경영의 의의가 중시된다.

\*庚申년에 공이 여기서 考終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어름에 정자를 홀연 수호할 수 없게되어 파손된 기와와 무너진 담장을 그대로 버려두었는데, 사람이 사라지고 좋은 일도 흔적이 없어져 고을사람들이 이곳을 가리키며 탄식한 지 이제 사십여년이다. 孫 富鎬라는 이가 있어서 분명히 일어나 말하기를 쇠막해져서 조상의 자취를 따라 집안의 명성을 떨칠 수는 없더라도 옛 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추모하는 마음을 부치는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이에 밤낮으로 재물을 거두고 工人과 재물을 모아서 규모있게 경영하여 문득 성취하였다. 이에 이 산과 숲을 대함에 泉石이 서로 기뻐하고 옛적의 모습이 의연하게 되었다.<sup>59)</sup>

李而禎(1619~1679)이라는 사람이 壬亂에 무공을 세우고 선무공신으로 冊勳된 金太虛(1555~1620)가 萬曆 을사년(1605)에 은퇴 장소로 창건한 博淵亭을 그 후손들이 임인년(1662)에 다시 중건하자 그 記文으로 쓴 한 구절이다. 공훈과 명망이 있었던 시대의 馨鬻을 자손이 이어서 진작하지는 못할 지라도 선대의 덕업을 기리고 빛낼 장소를 보전한다는 데 자손의 도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여 선대의 정자를 지키고 보전함으로써 선대에 이룩한 가문의 馨價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선대의 유적을 보전하여 그 유덕을 기리는 것은 후손들로서 先蔭을 추락시키지 않는 방편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념물로서의 樓亭 記文에는 정자를 보존하는 것이 유가적 효행으로 繼體 繼述하는 정신에

59) 李而禎 竹坡集 卷三 博淵亭重創記

\*歲庚申 公考終于斯 存沒推遷之間 亭忽不守 毀瓦墮垣 一任埋沒 人亡地隱 勝事無跡 邑人指點咨嗟者 于今四十有餘年矣 有孫富鎬者 奮然而作曰 微乎微也 不能繩祖武 振家聲 獨不可新舊宅寓藥墻乎 乃夙夜拮据 鳩功程材 經始有方 條爾而成 於是林巒如對 泉石相賀 依然昔日顏色 吁其盛也已 其尚也已

부합한다는 의론이 전개된다.

\* 집을 보전하는 것은 몸을 보전함과 같다. 몸을 잘 보전하는 자는 부모의 遺體를 받들어 감히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죽을 때까지 이르며, 집안을 잘 보전하는 자는 선조의 遺業을 이어받아 후시라도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영구히 전한다.<sup>60)</sup>

\* 고금에 이름난 莊園으로 平泉莊의 花石과 綠野園의 園林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한 두 세대를 전하지 못하고 무너진 담장과 황폐한 터에 들풀이 무성하게 되었다. 唐나라 李渤의 白鹿洞과 劉西澗 父子의 是是堂과 같은 것은 李씨와 劉씨의 자손들이 그 조상의 基業을 추모하여 肯構하였다. 이는 대개 부귀한 시절이 가면 그 家勢가 줄어들고 풍류가 멀어져서 드디어 없어지게 된이다. 翁은 是是堂의 오세손이다. 백년 동안에 그 명성에 의지하여 그 基業을 保守하고 先人의 집을 그 터에 다시 일으켜 그 사이에 배회하면 그분이 角巾 쓰고 기대어 앉은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서 燕息한다면 繼述하는 도리가 더할 나위 있으랴.<sup>61)</sup>

이는 中宗朝에 문과에 올라 左副承旨로 있다가 退休한 今是堂 李光軫(1513~1566)의 亭欄가 壬亂으로 황폐하게 된 뒤 그 후손이 숙종 갑자년(1684)에 증전하면서 관련 인사들이 지은 記文의 일부이다. 선대의 정자를 중수하여 지켜가는 것이 부모의 유체를 물리받아 상하지 않도록 保重하는 것과 같이 효행이요 繼述의 정신이라 하는 데서 保守記念의 전통적인 의식을 새겨볼 수 있다. 나아가 창건자 자신이, '우리 선조의 堂은 당시에 이미 탁한 세상을 깨우쳤고 장차 후세에 그 아름다움을 드날릴 것이니 후손들이 추모하는 것도 끝이 없을 것'<sup>62)</sup>이라 하여 정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정자에 은거하였던 인물의 志節이 구체화 되고 그

60) 李用休, 今是堂記畧, 栢谷逸稿 卷二 附錄

\* 保家猶保身 善保身者 奉父母遺體 不敢毀傷 以至終老 善保家者 承先祖遺業 勿或廢墜 以垂永久.

61) 宋履錫, 今是堂記事後識畧, 栢谷逸稿 卷二 附錄

\* 古今稱名園勝莊 莫如平泉花石 綠野園林 然不一再傳 而頽垣廢址 荒煙野草. 至如唐李渤之白鹿洞 劉西澗父子之是是堂者 賴有李劉子孫 思其祖業 爲之肯構. 是皆 富貴去則 其勢稍歇 風流遠而遂至於沈滅. 翁是今是堂之五世孫也. 百年之間 藉其名氏 保守其基業 使先人之廬 復起於其址. 徘徊墻宇 儼然如見角巾隱几 以燕息於其中則 繼述之道 孰加焉.

62) 李之運, 今是堂重建記事, 栢谷逸稿 卷一

我先祖之堂 已能激濁瀆當時 將復揚休於後世 與棟宇而不 窳則 後所以 頽墻之者 且將無期矣.

건물이 존속함으로써 그러한 節行이 길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추모 기념의 의의를 부각하였다.

선대의 樓亭을 대대로 지키고 보수해 간다는 것은 경제적 신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조선 후기의 사회에서 경제적 신분적 안정을 고수하는 방편이란 가산을 착실히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였지만, 향당의 사족으로 침탈을 당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보아 벼슬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生進으로 發身하거나 적어도 鄉試에 觀光은 하고, 한편으로 학문에 힘써서 師友간의 친교를 맺고 書院이나 鄉校에 출입하여 士林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鄉案에 꾸준히 入錄되어서 士族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에 의해 중건 중수되는 樓亭의 詩文에는 선대의 유업을 지켜 가기 위하여 후손들이 힘써야 할 바를 당부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정자의 보배로 삼을 것은 景物이 아니라 世守함이다. 그런즉 무릇 정자 위의 바위 하나도 世石이요 정자 아래의 한 그루 화초도 世花이다. 世石과 世花를 대하여 선인을 추모하면 그 추모함이 또한 대대로 무궁할 것이요, 대대로 추모함이 무궁할 것이므로 수호함도 대대로 무궁할 것이다. 우리 자손된 자로서 그 추모함을 그만 둘 수 있겠는가. 그 추모함에는 방법이 있다. 孝悌를 옷처럼 착용하여 실천하며 忠信을 띠처럼 둘러 간직하고 내 몸을 세워 내 이름을 날릴 따름이다. 한번 몸을 세우면 만사가 여일하게 되고 한번 그 이름을 날리면 만사가 다 날리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한갓 술잔을 잡고 아침저녁으로 놓고 구경하면서 내가 능히 先人の 사업을 繼述하며 선인의 뜻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손이 아니다.<sup>63)</sup>

松亭 河受—이 그 집안의 정자인 雲錦亭을 중수하면서 지은 글이다. 정자의 一花一石이 대대로 수호해야 할 선대의 유물인데 그것을 保守하기 위하여 遊樂에 빠지지 말고 孝悌忠信으로 일상 생활의 처신을 바르

63) 河受一, 雲錦亭記, 松亭集 卷四

\*雖然 斯亭所實 不啻景物 謂世守也。然則 凡亭上一石 莫非世石 亭下一花 莫非世花 對世石世花 而思先祖先人 其爲思也 亦世世無窮矣。思無窮於世 故守無窮於世世。爲吾子孫者 其可措其思乎。其思也有道。被服乎孝弟 襟帶乎忠信 立吾身 揚吾名而已。一立其身 萬事一矣。一揚其名 萬事揚矣。不然 徒把杯酒 朝遊而暮賞日 我能述人事 繼人志則 非吾子孫也。

게 하고 立身揚名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대의 가문을 일으킨 名士가 세간의 名利와 결별하고 風流로 遊觀宴息하던 장소에서, 그 후손에 이르러서는 이제 선대의 풍류를 그대로 즐기는데 안주하지 말고 또다시 立身揚名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에서 가문의 일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신분사회의 일견 이율배반적인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입신양명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명리에 급급한 세속적인 榮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선대의 가업을 보수 계승한다는 것은 다만 그 고유한 신분과 재산을 유지한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후손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대의 정자는 그 후손들의 齋宿所로서의 선인을 추모하는 기념물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그러한 先人이 남긴 교훈을 되새기라는 당부의 말을 적어두기도 한다.

\*자손으로 이 정자에 오르는 자는 조상의 마음을 마음으로 가지고 조상을 받들고 宗族을 소중히 여기며 노인을 공경하고 고아를 돌보아주며 죽음을 슬퍼하고 삶을 경축하며 질병은 이와 어려운 이를 내 몸처럼 절실히 보살펴준다면 祖宗의 신령이 洋洋히 강림하시어 온갖 祥瑞를 내리시리라. 자손으로 이 정자에 오르는 자가 제각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선조를 배반하고 情誼를 잊어버리며 분수를 넘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며 강성함을 믿고서 약한 이를 능멸하며 死生苦樂의 절실함을 진혀 다른 사람의 일로 못본 체 한다면 선생의 하늘에 계신 靈이 단연코 너를 내버려서 큰 벌을 내릴 것이다.<sup>64)</sup>

崔世鶴(1822~1899)이 고종 기축년(1889) 경주의 崔致遠 유적지에 세워진 최씨 花樹亭의 記文에 쓴 말이다. 시기적으로 조선말기의 신분제도의 혼란기에 서술된 것이기는 하지만 同宗의 사람들이 사생고락을 함께 하여 서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隣保의식이 유달리 강화되어 있

64) 崔世鶴, 尙書莊花樹亭記, 惺齋集 卷三

\*子孫之登是亭者 以祖先之心爲心 尊祖重宗 敬老而恤孤 愛死而慶生 疾病疴癢 舉切吾身則 祖宗神靈 洋洋陟降 降之百祥~子孫之登是亭者 各自以其心爲心 背先忠誼 犯分蔑常 恃強凌弱 死生苦樂 隔如楚越則 先生在天之靈 乃斷棄汝

음을 볼 수 있다.

樓亭이 선대의 기념물로서 그 家業의 세습적 토대를 과시하는 것이고 선인의 정신을 이어가는 기념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한 선인의 정신이 한 집안의 추념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선양될 가치가 있다는 명분만 주어진다면 보다 큰 집단의 기념물로서 확장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후손된 이로서는 가문의 聲價를 빛내고 선조를 선양하는 데 더할 수 없이 큰 사업이므로, 일반의 樓亭에서도 자연 그러한 요소를 내세워 포방하고, 좀더 재력이 있고 鄉士林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樓亭을 書堂이나 書院으로 확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아아 우리 선조의 道德과 文章, 淸風과 卓節은 불초 등이 사사사이의 론할 바 이니지면 師友淵源으로 말하자면 道義의 推重이 있었고 鄉黨에서의 처신을 말하자면 후인을 깨우친 공이 있으며 亂世를 당하여는 倡義의 실적이 있고 자손에게는 가업을 끼쳐줌이 있었다. 그 소요하시던 곳에 이정자를 시실함이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니 이 정자는 중대하지 않으나, 이정자에 거처하는 이는 마땅히 선조의 자취가 남은 곳을 추념하고 先人이 부탁하신 소중함을 체득하여 기와 한 장 나무 하나의 미세한 것일지라도 훼손하지 말고 봄 여름으로 글을 읽어 날로 학업을 진보시키고 의리를 준수하여 講信修睦한다면 이는 선대의 가업을 보전하여 가문의 성가에 욕됨이 없는 것이라 하리라.<sup>65)</sup>

에초에 私家의 정자로 경영되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鄉賢祠로서의 편액을 받아 서원으로 轉身한 예는 많지만 여기서는 앞에 예거한 바 있는 七灘亭의 경우이다. 위 글은 七灘亭을 짓고 은퇴하였던 鰲漢 孫起陽(1559~1617)의 6대손인 孫以魯가 정조 갑진년(1784)에 칠탄정을 중수하고 쓴 記文의 일부이다.

이 정자는 본디 孫起陽이 광해조 때 창원부사의 벼슬을 버리고 물러

65) 孫以魯, 七灘亭重修記, 七灘誌 卷一

\*噫我先祖道德文章 淸風卓節 有非不肖輩所可私議 而論師友則 有道義之推 處鄉邦則 有膺後之功 當亂世則 有倡義之績 在子孫則 有貽闕之謀 若其杖履之所斯亭之設 不可已則 斯亭也 顯不重且大歎 居是亭者 當思先祖遺囑之所 體先人付托之重 雖一瓦一木之微 罔或毀傷 而春絃夏誦 日進學業 違義方 而講信睦則 斯可謂 不墜先業 無忝家聲也.

나 휴양하던 곳으로 처음에는 소략하게 지은 草亭이었다. 그가 스스로 지은 虛亭記에 ‘물가의 약간 틈이 있는 곳에 정자를 지어 위로 어지러이 띠풀을 덮고 옆으로 작은 기둥을 바치고 아래로 대나무를 엮어 평상을 만들고 사방으로는 櫺과 같이 바자를 엮거나 흙을 바르지도 아니하였다.’<sup>66)</sup>라고 하였으니 여름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임시 거처였던 것이다. 그것이 오래갈리 없어서 그가 죽은 다음에 없어지고 말았는데, 영조 원년(1725) 曾孫 碩寬의 대에 이르러 건물을 다시 짓고 眞巖書堂이라 편액을 달아 자제들이 수학하는 곳으로 삼았고, 영조 무진년(1748)에는 좌우로 행랑을 증축하고 정조 8년 갑진에 다시 移建 중수하여 七灘亭으로 이름을 다시 고쳤다. 이런 과정에서 한편으로 李瀾, 蔡濟恭, 丁若鏞, 任守迪, 申光洙, 申光河, 睦萬重, 李家煥 등 師友諸賢으로부터 碑誌 題詠 등을 받아서 선조의 학덕과 공훈의 실적을 평가받고, 아울러 문집을 編修하여 당대의 名家로부터 序跋을 받아 뚜렷한 실적을 알렸다. 그리고는 정조 정사년(1797) 이후 잇달아 34개 祠院의 通文과 13차에 걸친 소청을 통하여 마침내 七灘書院의 額號를 걸게 되었다.

이러한 정자의 제영에도 의례히 先德을 찬양하고 추모하는 내용을 담는데, 그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 초대받아 유숙하는 인사들도 또한 그러한 회고적 감상을 서술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위에 든 七灘亭에 대하여 그 후손인 孫鍾夾(1802~1881)이 題詠한 것을 들어보인다.

\* 灘回七里置斯亭 칠리 여울 돌아들어 이 정자 지었으니  
吾祖清風閱幾齡 우리 선조 맑은 기풍 몇년이나 지났던가  
朔吹其時天正黑朔風 불던 그시절에 하늘은 정녕 어두웠으나  
歲寒然後栢猶青 겨울된 뒤에라도 松栢 외려 푸른 것을  
依巖卜築仍高士 바위 아래 卜築하여 高士가 되었었고  
投絨還山自客星 벼슬떠나 신에 오니 저절로 處士였네  
萬古蒼涼蘋蘩在 만고에 길이길이 제향을 받드오며  
遺孫追感拜先靈 후손은 추모하며 先靈에게 절하옵네<sup>67)</sup>

이와같이 선조의 德業과 文行을 대대로 이어가며 기념하고 그 성가를 선양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樓亭은 중요한 保守記念의 상징이 되어갔

66) 孫起陽, 榕漢文集 卷三, 虛亭記

67) 孫起陽, 榕漢文集 卷三, 虛亭記

고, 그러한 樓亭에서는 기문과 제영의 문자가 선조와 선현의 덕성을 추모하고 추앙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는 물론 韓末과 일제의 암흑기를 통하여 도처에 雨後竹筍격으로 건립된 수다한 樓亭과 齋舍들의 記文과 題詠에서 保守記念의 전통이 새삼스레 강조되는 것은 상기한 가문의 門閥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할 것이다.

#### 4. 樓亭文學의 성격과 意義

樓亭의 경영과 樓亭에서의 생활을 그린 樓亭文學에 대하여 그 개괄적인 개념을 얻고자 한 본고의 논의는 아직 자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대체로 樓亭文學의 내용이 양반 사대부 계층의 안정된 경제적 신분적 조건에서 비롯한 遊觀宴息의 樂事를 노래하고 그 가운데서 心神을 정양하는 閑情과, 先人을 추모하고 선대의 사적을 추모하는 보수적 전통이 서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樓亭文學의 성격과 의의를 조락하게나마 기술하기로 한다.

樓亭文學이 樓亭이라는 유희시설의 휴식에서 이루어진 문학이라는 것은 이 문학의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여건이다. 더구나 樓亭文學이 한국고전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중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樓亭文學, 특히 한시 가운데서 樓亭題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詩選集에서 대강 살펴보더라도 김종직이 精選한 靑丘風雅의 517 수 가운데 31 수, 허균이 刪定한 國朝詩刪의 888 수 가운데 96 수의 시가 樓亭題詠임이 그 詩題에 뚜렷이 나타나 있거니와, 그밖의 시 가운데서도 樓亭題詠으로 들어갈 것이 적지 않다. 한시가 흔히 詠物이나, 贈別 遊覽, 懷古, 讀史 등의 寓興이나 그 次韻으로 지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樓亭을 題材로 한 시가 이만한 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樓亭이란 본디 遊觀宴息의 휴식공간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휴식을 즐겨하기 마련이기에 그러한 휴양과 宴樂을 찾아 노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富貴權豪의 호사를 다한 환락이나, 歌舞飲酒를 갖춘 관인

들의 宴樂이나, 詩酒談笑로 자약한 處士들의 風流나, 나무그늘에 힘든  
 땀을 식히며 薄酒山菜로 徒歌徒舞하는 村家의 일시 行樂이거나 간에  
 그러한 樂을 부치고 흥을 찾는 것이 휴식공간의 본디 모습이다. 더구나  
 以文會友라 하여 양반 사대부들은 吟風弄月하는 일정한 교양을 가진 것  
 으로 그들의 신분이 常賤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들의  
 휴식이나 宴樂에는 의례히 詩賦가 여흥으로 지어졌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더구나 그들은 農牧漁樵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官人이  
 아니라면 勸農 課學하고 接賓客 奉祭祀하는 외에 일상의 시간은 항상  
 여가가 있었고, 讀書講學하거나 빈객을 접대하는 것도 대개 한가로운  
 시간에 樓亭에서 詩酒의 酬酌을 하였거니와, 관인도 공무의 여가나 빈  
 객의 접대를 위해 의례히 樓亭을 이용하고, 또 사대부들의 출행에는 대  
 개 다른 사람의 樓亭에 遊覽 留宿하였으니 樓亭제영이 많은 것은 이러  
 한 사대부들의 생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樓亭이 이와같이 휴식하거나 연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樓亭文學  
 은 자연히 그러한 宴樂이나 閑情을 노래하기 마련이다. 거기에다가, 장  
 대하고 상쾌한 樓亭을 경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와 신분적인 바탕이  
 보장되어야 가능하였고 조선조 사대부들은 그들이 정치이념으로 유가적  
 실천철학이 고려조의 權豪들처럼 호사를 다한 樓亭의 치장이 간혹 사치  
 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樓亭을 경영하여 유쾌  
 한 연락을 즐기고 휴양하며 그들 나름의 체모를 지켜나가는 관습이 폐  
 기될 수는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樓亭의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설  
 명도 나타내어야 하였다.

조선조 사대부의 시가에 閑情과 宴樂을 음영한 것이 많다는 것은 바  
 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사대부들이 시가를 酬酌하는 장  
 소가 樓亭이라는 한적하고 상쾌한 유관연식의 휴식공간이었기에 그들의  
 시가에는 이러한 휴식공간의 한적함이나 그 주변 자연의 승치, 그리고  
 그곳에서의 宴樂을 노래한 것이 많은 것이다. 사실상 한시와 같이 음영  
 되는 시가보다도 시조와 같이 가창되는 시조에서 유쾌한 연락이나 은근  
 한 閑情을 노래한 내용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는 것은 본디 시조가 그러  
 한 공간의 宴樂에서 불러진 가요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보리밥 못  
 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싫도록 노니노라 그밖에 여남

은 일이야 부를 줄이 있으라'고 하는 金壽長의 田家樂이라든가, '江山 좋은 景을 힘센이 다들양이면 내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얼을손가 진 실로 금할 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노니노라'고 하는 金天澤의 江湖樂이 실상 '獨上岳陽樓하야 洞庭湖 七白리라 落霞는 與孤鷺齊飛하고 秋水는 共長天一色으로 한업는 吳楚東南景이 眼前에 이었으니 樂無窮인가 하노라'고 하는 李後白의 시조처럼 樓上宴樂이거나 그에 가까운 한적한 휴식공간의 흥에 겨운 자기만족을 노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樓亭文學은 달리 말하여 휴식공간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휴식이란 놀고 쉬는 것이다. 노는 것에는 그 차림의 호사스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歌舞飲酒의 질탕한 宴樂을 벌이거나, 담박하게 談笑諷詠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자연의 경물을 玩賞하며 휴식하거나 자연의 경물을 빌어 풍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공간에서 분비되는 시가는 흡족한 자기만족이거나 담담하고 한가한 심정의 서술이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樓亭文學에서는 의례히 樓亭 주변의 자연경관을 仙境으로 묘사하고 인문환경을 태평성대의 桑麻雨露로 형용하는 것이요, 羽化登仙의 환상에 빠지거나 觀物察理의 다소 관념적인 구호를 내걸어 民物이 자기 自得其所하여 천리가 流行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만다. 신분제도가 엄존하였던 사회상황 아래에서 與民同樂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였거니와 사대부의 의식이 마침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樓亭의 閑情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데서 樓亭文學의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樓亭文學에서 무엇보다도 증시되어야 할 것은 자연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樓亭 주변은 자연이고 樓亭을 경영하고 遊觀하는 이는 휴식을 즐기는 양반 사대부였으니 양자는 아무런 대립이 없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날아가는 새, 물에 노니는 고기를 보고 그것을 잡아 끼니를 이어야 할 절박한 饑餓가 있는 것이 아니요, 눈내리고 비오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가로운 풍경이요 詩材로 인식될 수 있는 그들에게서 자연이란, 벼슬길에의 인간들과 부대끼면서 그 자욱한 人煙과 纒覆無常한 世事の 갈등에서 벗어날 좋은 장소였다. 그래서 '값없는 淸風', '일자 없는 明月', '取之無禁', '用之不竭'한 자연을 소유하겠다고 표방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의 경물이 인간의 비루한 人慾을 세척시켜주며 호연한 기상과 덕성을 길러주며, 자연에서 천리가 流行하는 이치를 살필 수 있다는 것으로서, 樓亭 景物이 인간의 심성수양에 덕됨을 찾아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에의 몰입이 한편으로 그들이 누누히 경계하였던 玩物喪志의 지경으로 점차 빠져들었음은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터이다. 浩然之氣를 기르고, 松栢의 지조 淸流의 明澄한 덕성을 배우며, 物物이 自得한 天理를 체득한다고 표방하였지만, 그것이 인간의 고뇌나 사회의 실상과 절연된 것이었기에 관념화된 자기투사로 그쳐서 인간과 사회에 수용이 되기 위한 兼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족적인 자기만족의 독선의 안일에 머물거나 가족주의적 폐쇄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樓亭文學의 내용 가운데에는 향리의 자연과 風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낸 것들이 있다. 관직에서 은퇴한 관인이나 사족들이 경영하는 私家의 樓亭 시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서 은퇴와 不出仕의 명분을 포방하는 가운데 흔히 고전적인 隱逸들과 관련된 고사와 풍정을 인용하여 자신들이 사는 향리를 比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향리가 곧 가보지도 못한 옛사림들의 은거지와 대등하다는 의식을 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거기에서 樓亭 주변의 범상한 경치나 향리의 일상적인 세세한 생활 자체를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는 데서 이 문학의 歸巢的 토착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樓亭을 先人과 先祖를 기념하는 가문의 기념물로 간주함에 따라 선인을 추모하고 조상의 家業을 길이 이어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선후기의 향촌사회가 가문의 문벌을 내세우는 경직된 班常의 엄격한 대립이 굳어져 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전대의 훌륭한 사적과 그 정신을 繼述하여 가는 傳統 형성의 역할이 樓亭文學의 한 기능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5. 結論

樓亭文化의 중요성에 비추어 樓亭文學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조선조 사대부문학에서 樓亭文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 출발한 본고

의 논의는 樓亭文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금으로서 위에 논술한 바와 같이 이 방면에 대한 일정한 의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樓亭文學이 樓亭이라는 遊觀宴息의 공간에 대한 문학이며, 그러한 양반 사대부 계층의 휴식공간에서 與民同樂, 鄉居自樂, 風詠宴樂, 觀物靜養, 保守記念 등의 적어도 다섯가지 내용들이 시대와 처지를 달리하여 서술되어 왔고, 그러한 樓亭문학의 특징적 요소는 樓亭이라는 공간의 특질에 상응되는 것으로서, 조선조 문학의 일반적인 특질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閑情이나 風流의 흐름이 사실상 이러한 문학생산공간의 특징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조선조 樓亭文化가 사대부 계층의 변모와 더불어 그 영역이 확산되고 기능이 다양하게 증폭되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樓亭문학도 사대부들이 樓亭경영을 지역의 향리로 분산시켜 가면서 점차 그들의 신분적 사회적 성격과 상응하여 문학적 성향의 변화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하는 데, 조선후기에 와서는 새로운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고 신분체계의 보수 유지에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학이 조선조 사대부의 수구적인 전통에 형성과 관련이 있고 인간과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모자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宴樂과 휴식의 문학으로서 우리문화전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전수 확장될 필요가 있고, 또 향촌사회의 삶과 가치와 그 정서는 단순히 관념적인 수준에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끌어가야 할 과제를 남겨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樓亭文學은 누정문화가 있음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樓亭文化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樓亭文學 연구의 선행작업이다. 다행히 요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樓亭文學의 토착적인 기반과 그 속에서 성취한 가치 내용들이 더욱 자세하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지방의 樓亭記文을 중심으로 서술된 본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디딤돌의 하나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